

방신실, KLPGA 넥센·세인트나인 우승

‘장타 여왕’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총상금 9억원)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방신실은 20일 경남 김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적어내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방신실은 12언더파 204타를 작성한 2위 마다숨을 한 타 차로 제치고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지난주 열린 iM금융오픈에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방신실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아쉬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2023년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우승을 맞았다.

대상 포인트 60점을 획득한 방신실은 총 120점으로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우승 상금 1억 6200만원을 추가해 총 2억 8291만 2420원으로 상금 행킹에서도 1위에 등극했다.

최종 라운드 역전 우승...1년 6개월 만에 통산 3승

한 타 뒤진 마다숨 2위...공동 9위 최은우, 3연패 무산



KLPGA 투어 방신실.

4번 홀(파4)에서 첫 버디에 성공한 방신실은 파 행진을 이어가다가 9번

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냈다. 후반 들어 방신실의 샷감은 더욱

뜨거웠다.

방신실은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한 뒤 14번 홀(파4)과 15번 홀(파4)에서 연달아 버디를 낚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이후 17번 홀(파3)과 마지막 18번 홀(파4)을 연속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감했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마다숨과 박지영이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하면서 방신실의 우승이 확정됐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하던 박지영은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iM금융오픈 챔피언 김민주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작성해 공동 6위에 자리했다.

2023년과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최은우는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의 성적을 거둬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



스포츠 열기로 뜨거운 장성군

장성군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열린 경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앞선 18일에는 검도, 골프, 농구, 볼링 4개 종목 시합이 열렸다. 함평군이 골프 종합 1위로 체전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성군 제공

마한의심장 영암팀, KB바둑리그 포스트시즌 입성

창단 2년 만에 정규리그 4위...22~23일 준플레이오프



영암군 바둑팀 ‘마한의심장 영암’이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십을 가릴 포스트시즌에 입성했다.

마한의심장 영암은 마지막 14라운드에서 순위가 결정될 만큼 치열

했던 승부가 펼쳐진 올해 정규리그에서 8승 6패를 기록 4위로 창단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올랐다.

9승 5패로 1위를 차지한 영림프라인창호에 이어 2위 원익, 3위 수려한합천과 정규시즌 같은 성적을 거뒀

지만, 개인 승패 차에 밀려 4위가 됐다.

이달 22~23일 수려한합천과 준플레이오프를 치루는 마한의심장 영암은 2연승을 거둬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에 오르면 이달 24일과 5/1~2일 원익과 챔피언결정전 한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5/3~5일 영림프라인창호와 3번기로 진행되는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2024~2025 KB바둑리그 포스트시즌은 1분 10초 피서방식, 조속기로 진행된다. 우승은 2억 5000만원, 준우승은 1억원, 3위는 6000만원, 4위는 3000만원의 상금을 각각 받는다.

한해원 마한의심장 영암 감독은 “팀 창단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영암 출신 조훈현 국수님의 영화 ‘승부’의 인기를 마한의심장 영암 팀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ae.co.kr

한화 노시환, 3경기 연속
대포...통산 100호 홈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젊은 거포’ 노시환이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렸다.

노시환은 2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냈다.

0-0으로 맞선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노시환은 NC 우완 선발 투수 이용찬의 스트라이크존 한복판 커브를 노려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2019년 4월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프로 통산 첫 홈런을 날린 노시환은 1군 무대 711번째 경기에서 개인 통산 100홈런을 채웠다.

프로농구 수원 KT, 6강 PO 78-76 승리

프로농구 수원 KT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꺾고 4강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성공했다.

KT는 20일 오후 2시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KCC 프로농구 6강 PO 5차전에서 78-76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시리즈 3승2패를 기록한 KT는 두 시즌 연속 4강 PO에 진출하게 됐다.

KT는 오는 23일부터 정규리그 1위 서울 SK와 4강 PO를 치른다.

KT에선 하윤기가 19점 11리바운드의 더블더블로 맹활약했다.

여기에 허훈, 조엘 카글랑안도 각각 12점으로 힘을 보탤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앤드류 니콜슨이 22점 14리바운드의 더블더블로 분투했지만 4강 PO까지 닿진 못했다.

이날 경기는 치고받는 흐름으로 팽팽하게 펼쳐졌다.

4쿼터 한국가스공사는 앤드류 니콜슨을 앞세워 5점 차까지 차이를 벌였다. 하지만 경기 종료 7분30초 전 하윤기가 2점슛으로 역전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하윤기가 연속해서 2점슛을 터트리면서 69-68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경기 종료 4분20초 전에는 문정현이 2점슛으로 차이를 더 벌였다.

한국가스공사의 광정훈이 쿼터 종료 2분10초 전 3점슛을 넣으면서 역전했으나, 경기 종료 직전 KT가 재역전했다.

49초 전 조엘 카글랑안이 3점슛으로 76-76을 만들었고, 경기 종료 2초 전 허훈이 2점슛으로 78-76을 만들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